10월30일시햇 경북지방직 국어복원문제 정단및해설 (김상곤선생님제공)

2005.10.30. 경북 복원 문제 및 유사문제 특강

제공: 김상곤선생님

1. 아래 단어의 발음이 바른 것은?

- (1) 닭을 [달글]
- (2) 헛웃음[헛우슴]
- (3) 떫지[떨:지]
- (4) 밟고[발:꼬]

정답) 1

2. 속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1)뚝배기 보다 장맛이 좋다- 내용이 형식보다 못하다
- (2)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업다
- (3)배주고 속 빌어 먹는다-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남에게 빼앗기고 그로부터 겨우 적은 이익 얻어가진다
- (4)번개 잦으면 천둥 친다- 자주 말하는 일은 마침내는 그대로 되고야 만다

정답) 1

3. 다음 고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1)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도둑을 맞히다>.-도둑을 맞았다
- (2) 철수는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에 부딪쳐>팔이 부러졌다.-자전거에 부딪쳐
- (3) 어느새 <재산을 늘여>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재산을 늘려
- (4) 너는 왜 너의 <재주를 썩느냐>-재주를 썩이냐

정답) 4

4. 다름 한자 표기가 바른 것은?

- 1.3개월 간의 실습 과정을 마쳤다 -> 課程
- 2.병원에 연고가 없는 환자가 한 명 있다. -> 然故
- 3.추위로 위장의 소화 기능이 약화되었다. ->技能
- 4.그는 씩씩한 기상을 지녔다. -> 氣象

정답) 1

5. 다음 문장의 구성성분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은?

- (1) 여실히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 (2)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 (3) 다음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4)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정답) 4

6. 밑줄 친 부분이 맟춤법 규정에 맞는 것은?

- 1. 사과는 껍질채 먹어라
- 2.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해라
- 3.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설레이는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들떴다

정답) 2

- (유제)다음 중 정서법에 어긋난 문장은?
- ①우리 세탁소는 짜집기와 드라이 클리닝을 전문으로 합니다.
- ②이 옷의 라벨을 보니 라이선스가 붙어 있었어.
- ③로열 젤리도 로션으로 만든다며?
- ④얘, 리모콘, 이리 줘. 미스테리 프로그램 봐야 해.

정답) 4

7. 문장의 종류를 설명한 것으로 바른것은?

- 1.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2. 저 사람은 아들이 유명한 화가이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3. 우리는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판단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4.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 가버렸구나! -> 부사절을 안은 문장

정답) 4

(유제)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①홀문장이다. ②홀문장도 되고, 겹문장도 된다.③안은 문장이다. ④이어진 문장이다.

정답) 3

8.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1)우리 인간은 법을 지키기도 하고 구속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2)우리는 예술 종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시를 생활화 한다는 말은 곧 시를 짓고 읽으며, 시를 맛보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 4)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답) 2

- (유제)다음 중 우리말이 어색한 문장은?
- ①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②나는,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는 훔볼트의 언어관에 공감하게 되었다.
- ③그녀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④우리는 책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는다

정답) 4.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문법에 맞는 것은?

(1)형이 동생만 <못하다>

- (2) 그는 행동이 〈못 되다〉
- (3) 시험시간이 아직 <안되었다>
- (4) 시험에 실패했다니 <참 안 되었다>

정답) 1

(유제)다음 중 띄어쓰기가 어색한 문장은?

①제2 차 세계 대전 ②가정 형편 상 ③단장의 인솔 하에 ④본(本) 대학에서는 **정단) 2**

10. 밑줄 친 부분과 쓰임새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생각이 이에 <미치매>한시각도 이곳에 지체할수없이 마음이 설렌다.

- (1) 도박에 <미쳐> 전 재산을 날렸다.
- (2) 그는 심리적 충격으로 <미쳐> 버렸다.
- (3) 화가 가족에게 <미쳐> 모두 힘들어졌다.
- (4) 화제가 그의 과실에 <미치자> 그는 살그머니 사라졌다.

정답) 4

11. 다음의 소통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
- (2) 이 글의 산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 (3) 화자가 산에서 느끼는 감정을 점층화하여 희열감을 드러낸다.
- (4) 세련된 비유와 묘사로 대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했다.

정답) 1

12. ㄱ을 ㄴ으로 풀었을 때 달라지는 효과가 아닌 것은?

_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 갔구나

L

나는 어느 날 밤 유리창밖에 죽은 아들이 어른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입김으로 유리창이 흐려지면서 나타난 모습이 죽은 아이가 새로 변해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같이 느꼈다.

- (1) 운율의 효과가 사라졌다.
- (2) 대상의 모습이 함축성 있게 표현되었다.
- (3) 시어의 의미가 명료해졌다.
- (4) 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답) 2

13. 다음은 한 대중가요 가사다. 이 가사에 대한 해석으로 맞는 것은?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 이런 나의 마음을

- 1.형상성-관념적 시어로 임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보여줌
- 2.형상성-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격정적어조로 반복하여 표현함
- 3.음악성=각운으로 리듬도 살리며 임에 대한 사랑을 점층적으로 표현
- 4.함축성-단순하고 직설적어조로 화자심정을 노출하여 독자가 쉽게 화자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게함

정답) 4

14. 한자성어의 뜻을 잘못 연결한 것은?

- 1.각주구검 판단력이 둔하여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
- 2.고식지계- 당장의 편안함만 꾀하는 일시적 방편
- 3.다기망양- 거의 죽게 되어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
- 4.빙탄지간-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

정답) 3

(유제)다음 성어 중 관련이 먼 하나는?

①結草報恩 ②反哺報恩 ③風樹之嘆 ④昏定晨省

정답) 3

15. 밑줄친 부분의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는 것을 a-e에서 고르면?

- ㄱ 중세국어에서는 '온, 즈믄, 가람'같은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 ㄴ 나랏 (a말싸미) 듕귁에 (b달아) 문자와로 서르 (c사맛디) 아니할쎄 이런 (d젼차로) 어린 백셩이 (e니르고져) 홇베이셔도
 -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 노미하니라
- (1) a.b
- (2) b,c
- (3) c,d
- (4) d,e

정답) 3

(유제) 다음 중 의미의 변화와 관계없는 보기는?

①씩씩하다 ②방송(放送)하다 ③인정(人情)없는 사람 ④높은 뫼(山)

정답) 4

16. 다음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한글 자모의 이름(사실은 발음방법)을 지을 때에 초성과 중성에 두루 쓰이는 글자의 이름은 "ㅣ,ㅡ"를 가운데 두고 그 앞과 뒤에 그 글자의 소리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ㄱ"은 "기윽","ㄷ"은 "디읃","ㅅ"은 "시윽"이 되어야 하겠는데 ,"윽","읃","읏"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는 것이 문제 였다. 그리하여 궁리 끝에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 자로써 변통을 했다. "윽"은 "역"으로 변통하고 ,"읃"과 "읏"은 도리가 없어 "未(귿 말)","衣(옷 의)"를 써서 池末(디귿)",時衣(시옷)"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 글자는 음으로 읽지 말고 뜻(새김)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 ① 한글 자모의 원래 모양에 대하여
- ② 한글 자모의 생성 워리에 대하여
- ③ 당시 한글 자모의 실제음과 이상음에 대하여
- ④ 한글 자모의 이름이 불규칙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정답) 4

(유제)다음 내용의 '지전'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단어를 아래 작품에서 고르면?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이 노래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광풍이 불어 지전(紙錢)을 서쪽으로 날려 없어지게 했다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데, 이는 향가가 땅을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으매 두려워 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에 떨어질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에 만나볼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①길 ②바람 ③나뭇잎 ④미타찰

정답) 3

17.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보기와 이질적인 것은?

[대조--어떤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그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함]

- ① 음악은 기본 재료인 "소리"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고정시켜주는 "틀"에 의해 성립된다. 서양음악은 "틀"을 더 중시하는 음악이라면, 우리 전통 음악은 "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겠다.
- ② 업는 것이나 포옹하는 것이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합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차이는 포옹은 수평적인 평등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포옹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는 것은 반드시 업는 자와 업히는 자가 위 아래로 나누어집니다.
- ③ 인생에서 적당한 소음은 필요하다. 소음과 침묵은 정반대의 현상이지만 소음이 없다면 침묵도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산 속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면 진정한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고요 속의 종소리는 침묵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침묵을 불러들인다.
- ④ 고전적인 방식의 자화상과 현대 화가의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실제모습의 반영이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고전주의 화가들은 세계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자화상을 그렸다. 화가들은 예술가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지니고 열정과 꿈, 이상 등을 자신의 모습에 투사하였다. 그러나 현대 화가들은 상징과 풍자, 패러디 등의 방식을 통해 불안과 소외, 자아 부정을 드러내고 정체성 혼란을 겪은 흔적을 역력하게 드러낸다.

정답) 3

(유제)다음 중 비교와 대조의 항목으로 어색한 것은?

①언론과 신문 ②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③봄과 가을 ④아버지와 어머니

정답) 1

18.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장은?

- 1) 우습구나 큰 남의 배를 사공 없이 빌려 타고 끝없는 환해풍파 떠날 줄을 모르니
- 2)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 3)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청강에 죠히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 4) 세차고 크나큰 말게 이내 시름 등재게 실어 주천 바다에 띄우고쟈.~ 진실로 그렇게 할 양이면 자연 삭아지리라

정답) 1

(유제)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는?

①기러기 ○낙목한천 ©한로, 상강

①계절 ②새 ③하늘 ④세시풍속

정답) 1

19.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외래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 ① 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
- ② 나에게 있어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이다.
- ③ 그야말로 장편서사시에 값하는 것이다.
- ④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정답) 4

- (유제)번역투의 문장이 아니 것은?
- ①나는 어제 저녁에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다.
- ②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③요즘은 주제가 가벼운 책들이 많이 읽혀진다.
- ④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

정답) 1

20.

- (유제)문장쓰기의 원리에 어긋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내가 가려는 곳은 제주도인데, 서귀포이다.
- ②이 토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은 세 가지 문제이다.
- ③어머니는 소풍 때 떡과 과자와 달걀과 사과를 싸 주셨다.
- ④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민속촌에 견학 갈 생각을 했다.

정답) 1

마지막 문제는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늘 건강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을에도 땡땡합니다.